근본 자리에 맡기고 관하는 게 그대로 내가 죽는 방법입니다

☞ 17면에서 계속

아요. 이 몸뚱이 하나 속에도 생명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바로 공체죠. 그리고 또 공체로서 움죽거린다면 공용이지, 어떻게 자기가 개별적으로 하나가 움죽거리는 겁니까? 그러니까 같이, 더불어 같이 움죽거리기 때문에 공용이죠. 그리고 공식이고. 그래서 공생 · 공심 · 공체 · 공용 · 공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는 공심으로서 쓰는 것이 지혜고, 공심이 아닌 개별적으로 내가 이렇게 나대로 그냥 마구 말하는 걸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항상 '이 몸뚱이도 공체고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더불어 같이 사는 거구나. 더불어 같이 움죽거리는 거구나. 더불어 같이 보는 거로구나. 더불어 같이 먹는 거로구나. 더불어 같이 생각하고 사는 거로구나. 그러니 나라고 세울 게 뭐 있겠나. 내가 혼자 했다고 할 게 뭐 있겠나. 내가 혼자 봤다고 할 게 뭐 있겠나. 혼자 들었다고 할 게 뭐 있나. 내가 산다고 할 것도 없다. 나를 세울 게 하나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 세상이 모두 공해서 초월해서 돌아간다는 걸 알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했다, 나다, 내가 한다, 내가 먹었다, 내가 산다' 이런 말이 싹 빠지게 되죠. 그러니까 '내가 공생이면서 공심이면서 공체면서 공용하고 있구나. 그리고 공식화하고 있구나. 그런데 어떻게 내가, 내가 했다고 하며 나를 세울 수 있겠느냐. 이 공체를 어떻게 나라고 세울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갈수록 마음이 옹졸해집니다

질문 :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생의 여유로움이 생길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된 게 갈수록 마음이 더 옹졸하게 됩니다. 사실 생계를 유지하기가 버거워지고 힘들어지다 보니 가족들에게 욕도 많이 하고 욱하고 화도 자주 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게 한마디 일러 주십시오.

답변 :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몽땅 버리지 않으시고 그러십니다. 저 나무들이 자기 뿌리에 매달려 있다는 것을 나무들도 알고, 바람이 부나 비가 내리나 눈이 오나 뜨거우나 하여간에 모든 것은 그 뿌리에서만이 싹을 돕기 때문에 그 나무들은 그냥 편안하게, 어떠한 뜨거운 고가 닥쳐도 그냥 편안하게 거기에 안치하고, 한마음이 돼서 편안하게 지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뿌리를 믿지 못해서 편안히 마음을 갖지 못하시는 거 같아요. 어떤 분은 편안하시고, 어떤 분은 편안치 못하고, 어떤 분은 더 편안치 못하고, 어떤 분은 방방 바깥으로 뛰시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 나무들이 말입니다, 모진 바람이 분다고 해서 싹이 아무리 방방 뛰어도 그것은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그 마음 문제입니다. 아무리 나무들이 바람에 휘날리고 폭풍이 불어도 끄떡없이, 그 뿌리는 한데 한마음이 돼서 뿌리를 지키는 마음, 그 뿌리를 깊이 박고 싹을 쪼끔도 흐트러지게 안 하는 그런 그 나무들의 이치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 싹과 뿌리가 말입니다. 어떻게들 하고 있나. 바람이 분다고 온통 난리를 칩디까? 아무리 흔들려도 그 뿌리에 매달려서 끄떡없이 갑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콧방귀 탁 뀌고 그 뿌리에다가 모든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면 뿌리에다 맡기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니깐 말입니다. 그대로 인정하기 때문에 거기다 맡기고 안 맡기고 간에 거기서 다 뿌리와 싹이 통신이 되죠.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말입니다, 어떻게 마음입니까, 그게?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불쑥불쑥 만나면 얘기하고 불쑥불쑥 만나면 보고 불쑥불쑥 만나면 듣고 불쑥불쑥 그냥…, 그냥 여여하게 말하시고 듣고 행하시죠. 누구한테 내가 이렇게 행한다 하고 행하시지 않죠. 누구한테 말한다고 하지 않으시고 말하시죠. 본다고 하지도 않죠. 듣는다고 하지도 않죠. 그럭하고서 그대로 여여하게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여여함이 그대로, 여러분들 그 마음이 그대로, 마음속에서 그렇게 나오는 그 여여함이 그대롭니다, 그대로!

부처님이 왜 부처님이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악과 선을 다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악과 선을 갖추어서 그걸 둥글릴 줄 알기 때문에 부처님이에요. 그래서 32상에 80종호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라도 요만한 거 하나 빼놓지 않고 모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에만 부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다 불성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자불입니다.

근데 우리 지금 마음이 문젭니다. 마음이 때에 따라 화가 나면 욕도 하고 그러죠. 욕도 나오고 그냥 좋은 말도 나오고 거친 말도 나오고 이러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냥. 그대로 정상이란 말입니다. 그대로 정상을 그대로 여여한 줄 알라 이겁니다. 만약에 거친 말이 안 나온다면, 선한 말만 나오고 좋은 말만 나온다면 그것은 부처가 아닙니다. 모두가 부처라는 것은 평등공법에서 나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욕을 한다고 그래서 욕이 업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겁나시죠? 항상 제가 그렇게 해 나왔으니까 좋은 말을 쓰시라고 하고 언짢은 말은 쓰지 마시라고 하고 이렇게 한 것은 여러분들이 언짢은 걸 언짢게, 언짢다는 걸 알고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언짢아지는 겁니다, 그게. 참 이해가 안 갈 소리죠.

이게 아니다 기다, 이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부처님은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러죠. 그런데 '없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없는 것이 아니다' 이러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이 있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 말이 어떻게 엇갈립니다. 그래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이러면 양편은 다 본래 갖추어진 본연의 자리에 있다는 얘깁니다.

어떠한 짜증이 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떠한 부질없는 용도가 내 앞에 닥치고, 어떠한 게 망하고 흥하고 이런 걸 떠나서, 내가 그러죠.

> 항상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다 놓고
> 편안하게 마음먹어라.
> 주인이 하는 거를 심부름하는 놈이
> 뭘 그렇게 참견을 하고 걱정을 하느냐.

"항상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거기다가 놓고, 자기는 자기가 사는 게 아니라 그 주인으로 인해서 심부름하고 이렇게 사는 거니까 그대로 거기 놓고 편안하게 마음먹어라. 심부름하는 놈이 뭘 그렇게 주인이 하는 거를 참견을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하느냐." 이러죠.

내 몸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걱정을 해서 되는 게 아니예요. 거기다 믿고 거기다 놔 버려야 돼요. 그냥 믿는다 안 믿는다도 없는 거죠. 본래 자기 뿌리니까. 그 가운데서 그냥 여러분들이 마음 쓰고 밀고 나가는, 물러서지 않고 밀고 나가는 그 마음이 그냥 공법입니다. 공법의 핵심입니다.

주변 사람에게 이익이 되고 싶어요

질문 : 스님께서는 길을 가시다가도 한순간에 천도를 하신다는데, 저희 같은 범부들은 스님처럼 천도는 못 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라도 이익이 되고 싶은데 그마저도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답변 : "길에 지나가다가도 천도재를 한다." 이 뜻은 뭐냐. 천도를 한다는 겁니다. 소나 말이나 돼지나 어떠한 사람이나 가다가 보면 그 속을, 남의 속을 다 아니깐…. 남의 속을 다 아는 것, 타심통도 도가 아니다 이런 것이 뭐냐 하면 타심통을 안다면 즉시 실천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게 도입니다. 실천 없는 거는 도가 아닙니다.

오신통은 그릇을 만드는 거고 또 우리가 실천은 그 그릇대로 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걸 무시하지 마시고, 육으로다가 한 걸음 한 걸음 떼어 놓는 거보다도 이 정신계의 참자기…, 자기란 수억겁을 거쳐 온 아주 보배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그 억겁을 거쳐 온 그 주인공이, 즉 말하자면 주장자가 주인이고 몸은 그냥 시자인 것입니다. 시자일 뿐입니다.

우리가 반가워서 악수를 할 때에 마음이 가니깐 손이 덩달아 따라간 거지, 마음이 안 가는데 어떻게 손이 악수를 하려고 덩달아 따라갑니까? 그래서 마음이 움죽거리는 것이 전체가, 여러분들이 움죽거리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따라서 매여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매인 몸은 공했다. 매인 몸이기 때문에 공했다. 찰나찰나 물을 마셔도 내가 마셨단 말을 못 한다. 왜? 이 지구와 같은 이 몸속에 이 한 개체도 생명체들이 얽히고설키고 많이 있음으로써 어떤 것이 먹는다고 할 수 없으니깐 "내가 먹은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냉정히 따지고 보면 그 중생들이 달래서 나는 심부름만 한 거지, 아래로는 중생들의 심부름, 위로는 그 부처님의 시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모두가 아래 중생들을 모두 흡수해야 된다' 이러는 거는 조복을 해야 된다, 한마음으로 조복이 돼야 내가 마음먹는 대로 한마음으로 따라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의식들이 다 보살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부처님께서도 자기 마음을 그대로 천차만별로 보살행을 하게끔 자유권을 줬습니다. 자유권을 준 게 아니라 자기가 자유권을 가졌기 때문에 자유권이 있게끔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은 딱, 지금 그거를 '어휴! 내가 이거 뭐, 중생인데 이것을 이렇게 허공에 발을 떼어 놓을 때에 떼어 놓을 수가 있나?' 이러지만 우리가 그냥 거기다가 맡기고 관하고 이러는 게 그대로 내가 죽는 방법이요, 내가 함이 없이 하는 방법이요, 둘 아닌 도리를 아는 방법이요, 구경계에 이르는 방법이요, 전부가 아니 되는 게, 아니 하는 게 없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내 모습 아닌 게 하나도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아닌 게 없고, 내 생명 아닌 게 없고, 공용이다, 공식이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건져 주는 데도, 하다못해 물에서 노는 고기 한 마릴 건져도 내가 수많게 화해서 그 고기로도 들어가고 짐승에도 들어가고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바로 그걸 건지는 겁니다.

부처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마음공부 하는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전제를 하고 지금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점프를 해서 계단을 한걸음에 올라올 수 있다면 강은 못 건너가겠습니까? 강 속은 못 들어가겠습니까? 은산철벽은 못 뚫겠습니까? 삼라대천세계는 못 가겠습니까? 두루 하죠. 덮고도 받치고도 남음이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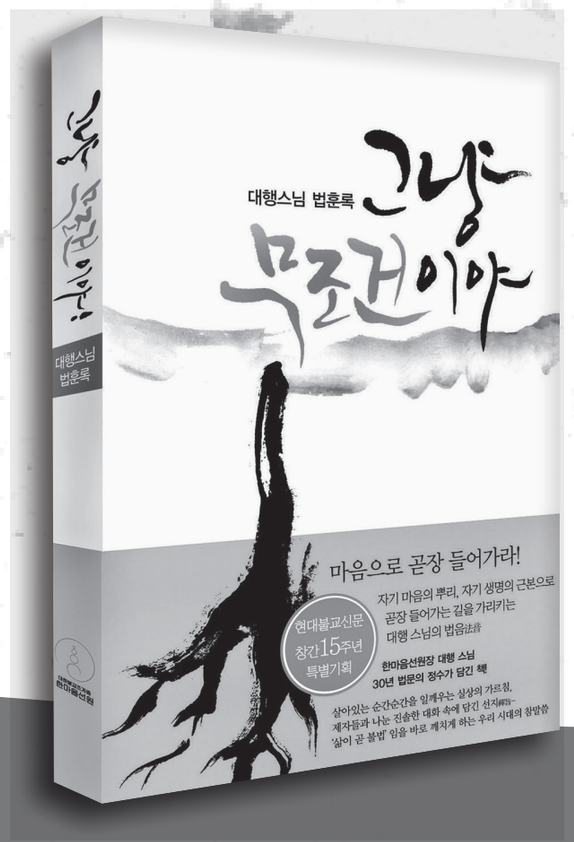
그러니 우리 자체가 이렇게 관하면은 벌써…, 예를 들어 미국에서 기별이 왔는데 "지금 급하답니다." 이러고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친척이 만약에 미국에서 사는데 미국에서 급하게 왔다고 합니다, 기별이. 그럼 어떡해야 되겠습니까? 그쪽의 마음도 이쪽의 마음도 둘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길다 짧다, 악이다 선이다 이거를 전제하고 무조건이었습니다. 무조건이십니다. 우리도 무조건입니다. 이유를 붙이지 않아야 됩니다. '너는 고렇게 얄밉게 했으니깐 넌 그렇게 해도 싸.'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도저히 부처님의 그림자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게 해서 할 때에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직껏 수차에 걸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해 드리고 실천을 하라고 그랬죠. 이거는 어떠한 거를 거기 집어넣고 해결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인공에다가 그냥 '둘 아닌데 너만이 할 수 있어!' 하고 자기 주인공에 관하면 그 주인공으로 그냥 나투게 됩니다. 나투게 돼서 그것을 멈추게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급하니깐 그랬지만, 가까운 데서 그럴 때는 데리고 와서 관하는 것도 가르쳐 주고 이러면서 가르쳐 줘야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가까운 데 사람은 조금 공부를 가르치는 편이고 또 가깝지 않고 멀리 있거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거나 이러면 무조건 줘야 합니다. 아셨죠?

그게 바로 무심 도리요, 바로 공용의 도리요, 공체의 도리요, 공식의 도립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뭐든지 내줄 수 있는 여건이라면 다 내준다 이런 거 말입니다. 내도 내도 줄지 않고 또 넣어도 넣어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수만, 이 허공을 다 집어넣는대도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그건 체가 없는 까닭입니다. 체가 없는 데다가 체가 없는 걸 넣으니까 이 천차만별의 생명들을 다 집어넣어도 두드러지는 법이 있겠습니까, 어디?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시대의 참 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mahamall.co.kr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마하몰